

# ‘문고리 2인’ 범망 피하다 결국 덜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체포된 이재민(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날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계속 검찰 칼끝을 피쳐왔던 박근혜정부 ‘문고리 2인방’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고리 2인방은 이재민(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이미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가려면 반드시 이들을 거처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최측근으로 행세했다.

그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만큼 각종 발령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체포 후 조사 국정농단 사건 다수 연루 의혹...檢 칼끝은 비켜가

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과정을 도왔다. 의혹,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북인했다는 의심 속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만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관련 인물의 조사 비협조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날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근처만 가면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데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작아진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국정농단이 더 심한 안 전 비서관 등을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전혀 새로운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된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는 말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압수수색을 벌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용선 전 정무수석 등을 상대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된 두 사람에게 대해서도 상납 명목 등을 조사한 뒤 체포영장 만료 시간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시장 출마설 부인

조국 민정수석이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

조국 수석은 지난날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김영춘 해수부장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 등과 부산시장 출마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 수석은 입장문에서 “누차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면서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는 향후 오로지 대통령명을 보좌하는데 전념하고자 함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도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했다.

지방선거 출마설에 휩싸인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당분간 이같은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잠겨 있을 전망이다.

뉴스스

## 국민의당 “네이버 대선개입 의혹, 즉각 진상조사 해야”

### “포털 검색시장 70% 독점적 지위...규제 방안 강구”

국민의당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 방안 마련 및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지난날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현직 부사장을 선거캠프에 영입하여 뉴스를 조작,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네이버를 통한 불법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 즉각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체 기업윤리 규범이 있음에도 네이버가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

제”라며 “네이버는 이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4월8일 대선 여론조사 기사를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제목을 수정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월 기사의 제목은 다자대결 땀 문 38.4 안 34.9 양자대결 땀 안 50.7 문 42.7이었으나 네이버 홈페이지에는 다자대결 땀 문 38.4 안 34.9 양자대결 땀 50.7 문 42.7으로 안이 빠져 노출됐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의 경우 불리한 검색어가 특정시간 검색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21분부터 5시50분까지 29분 동안 ‘취업특혜’, ‘문준용’ 등의 연관검색어 기능이 삭제된 채 ‘문재인’ 이틀만 노출됐다”며 “4월8일은 해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같은 날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에는 안철수 38쪽이 오후 1시29분부터 4시38분 동안 게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포털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언론인 등 언론 아닌 척 하는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 주호영 “文대통령, 국민 10명 남북 됐는데 프로야구 시구”

“일주일간 억류 후 풀어준데 항의조차 하지 않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날 31일 ‘391 홍진호’ 남북 사건과 관련해 “국민 10명이 실종됐는데도 엄중한 상황을 방치한 채 대통령이 프로야구 시구를 위해 지방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 당시 복잡한 정국을 외면하는 한가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10명이 탄 홍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다”며 “우리 국방부나 청와대, 해군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며 “북한이 나포 후 1주일간 억류하고 있다”고 풀어준데 대해 “항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지난날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 정우택 “홍종학, 스스로 거취 정리해야”

“文대통령, 인사참사 직접 대국민사과 후 지명철회해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날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홍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절대 부적격자로 판단되니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여 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2억을 내기 위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며 “부동산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살짜리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차용계약을 맺고 2억 원을 빌리는 일을 상식적으로 정상거래라고 할 수 있느냐”며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걸 민법을 위반한 탈세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홍 후보자는 본인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비판했던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수법을 그대로 활용해 수억원 이상의 세금을 챙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의 행동은 인형불일치의 첩피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 후보자의 딸은 현재 연 수입도 1500만원이 넘는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홍 후보자는 특목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인사참사에 대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고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홍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